



2023 프리미엄브랜드지수 8년 연속 1위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행복한 미래 의료의 중심 삼성서울병원

우리나라 의료계에 환자 중심 의료 문화의 가치를 처음 제시하고 구축한 삼성서울병원은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환자 행복이라는 가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며, 중증 중심의 첨단 지능형 병원을 완성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격차 미래 병원을 향한 혁신과 도전으로 대전환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



회진 로봇



대규모 물류이송 로봇(AGV)



S·M·A·R·T Driven Hospital
Super-gap(difference) through integration of IoT, AI, Robotics and medical-Twin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서 미래 병원의 구현 선도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첨단지능형 병원을 추구하며 의료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2019년 '미래 의료의 중심 SMC'라는 비전과 함께 첨단지능형 병원을 포함한 전략 방향을 선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의료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진료 현장의 수작업 등 비효율 업무를 제거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있는 곳이 곧 진료 현장이 되는 'Connect 진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수술, 입퇴원, 외래 검사 등 주요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지원 부문에서는 주간 시간의 물류와 인편 배송, 과도한 재고 적재 등 물류 체계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물류 전반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물류 로봇은 별도의 청구 없이 표준 수량을 기반으로 매일 필요한 진료 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물류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무청구, 무검수, 무인화, 무재고 4無 물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진료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물품 관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진료와 안녕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술, 외래, 입원, 검사 등 주요 부문에서 운영 자원 메디컬 트윈인

DOCC(Data-based Operation & Communication Center)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적재적소의 직원 배치 및 예상 대기 시간 관리 등 효율적 디지털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

로봇 기반의 자동화 전환 확대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기반 자동화로 전환해 오고 있다. 현재 병동에 확산된 '진료재료 야간 AGV 자동 배송'은 의료진이 진료재료 청구 및 재고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 주었다. 또한 항암제를 자동으로 배송하는 소규모 물류 이송 로봇은 동일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은 로봇 도입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병원 물류의 자동화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외래·수술·검사 부문까지 확대해 총 3종의 로봇으로 각 진료 현장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계획이다. 병원 물류 대동맥인 병동 진료재료 자동화에 이어 미세 혈관에 해당하는 진료 현장의 소규모 물류 이송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병원 물류 자동화 모델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예정이다.

INTERVIEW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삼성서울병원은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 선도 기술을 발굴하고 임상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첨단 지능형 미래 병원으로서 최고의 스마트 호스피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도약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와 사회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